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남 역대 최고 득점 '종합 7위'

금 19·은 6·동 10개... 373점
크로스컨트리 이운주 5관왕
광주, 동 3개 종합 12위... 1단계 ↑
김규원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동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나선 전남 선수단이 역대 최고 득점을 획득하며 종합 7위를 차지했다. 광주 선수단은 종합 1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 18~21일 강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동계체전에 7개 종목에 193명(선수 112·임원 8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등 총 35개의 메달과 종합득점 373점을 획득하며 종합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이고 전남의 동계체전 사상 역대 최고 득점(종전 105회 대회 351점)이다.

전남은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 2관왕 1명 등 다관왕도 다수 배출했다.

'크로스컨트리 기대주' 이운주(나주다시초 6)가 이번 대회에서 스키 크로스컨트리(여자 12세 이하부) 5개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운주는 대회 첫 날인 18일 클래식 2.5km에서 9분19초4의 기록으로 첫 번째 금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크로스컨트리 선수단이 지난 19일 강원 일원에서 격려방문한 전남도체육회 임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메달을 획득했다. 19일에는 프리3km(10분45초4)와 복합(20분05초8)에서 2개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20일에는 6km계주에 이지효(화순초 5)·최보유(화순초 6)와 출전해 23분59초3으로 1위를 차지했다. 21일엔 스프린트0.7km 예선과 결승을 모두 1위로 들어오며 5관왕을 달성했다.

스키 알파인 여자 15세 이하부의 강다현(여수삼일중 3)과 크로스컨트리 여자 15세 이하부의 조다은(화순제일중 3)은 각각 4관왕을 차지했다.

강다현은 대회전(1분11초13)·슈퍼대회전(44초42)·회전(1분18초05)·복합에서 4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조다은은 프리7.5km(23분56초7)·복합(41분51초7)·계주15km(56분00초7)·스

프린트 1.2km(4분09초44)에서 각각 금메달을, 클래식 5km(17분55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바이애슬론 여자 간판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전남도체육회)는 금메달 3개(혼성계주·스프린트7.5km·집단출발 12.5km)와 은메달 1개(계주18km)를 목에 걸었다.

남자 간판 티모페이 랍신(전남도체육회)은 금메달 2개(혼성계주·스프린트10km)와 은메달 1개(계주22.5km)를 차지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는 깜짝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전은지와 서유림(전남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 봅슬레이 여자 일반부 2인승 경기에서 1분45초81로 1위를 기록했다.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선수단이 지난 19일 강원 평창에서 격려방문한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금메달을 노렸던 산악의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은 남자 일반부 리드 결승에서 실수로 아쉬운 동메달에 만족했다.

전남은 이번 대회를 통해 3년 연속 동계체전에서 한 자리수 등위에 오르며 더 이상 동계종목 불모지가 아님을 증명했다.

광주 선수단은 6개 종목에 114명(선수 66·임원 48명)이 출전해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득점 159점으로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광주 선수단은 세종에 종합점수 10여점 뒤처지며 13위에 머물렀으나 대회 마지막 날 25점을 획득, 세종을 2점 차로 따돌리고 당초 목표인 13위보다 한 단계 오른 순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이기도 하다.

광주 선수단은 사전경기로 열린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의 장운우(성덕중 1)가 지난달 15일 남자 15세 이하부 매스타트에서 20포인트를 획득, 동메달을 목에 걸며 광주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나건욱(태봉초 6년)은 지난달 16일 열린 남자 12세 이하부 1000m 경기에서 1분26초46을 기록하며 광주 두 번째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규원(광주알파인스노보드스키클럽)은 지난 20일 스키 스노보드 남자 일반부 평행대회전에서 동메달을 차지, 생애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산악,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날인 21일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추가 점수를 따내며 광주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쾌투' KIA 운영철·김도현 첫 실전서 나란히 2이닝 퍼펙트

지난 22일 히로시마에 3-10 패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호랑이 군단이 첫 실전에서 따끈한 예방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운영철과 김도현이 각각 2이닝 퍼펙트, 최지민이 1이닝 무실점으로 위력투를 펼쳤고 김석환도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외야 경쟁에 불을 붙였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22일 일본 오키나와 코자 신킨 스타디움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2차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3-10으로 역전패했다. 히로시마는 지난해 일본 프로 야구(NPB) 센트럴 리그 4위에 그치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역전패에도 KIA는 예비 선발진이 위력투를 펼치는 수확을 거뒀다.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할 운영철이 가장 먼저 등판해 2이닝을 퍼펙트로 틀어막았고 황동하, 김태형과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도현이 이어 마운드에 올라 역시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다.

운영철은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커터 등을 고루 점검하며 최고 구속 141km를 찍었다. 김도현도 직구와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등을 구사하며 최고 구속은 148km를 기록했다.

운영철과 김도현이 위력투를 펼쳤지만 김태형과 이준영, 유승철로 이어진 마운드는 아쉬움을 남겼다. 김태형은 1이닝 2피안타 2볼넷으로 3실점, 이준영은 0.2이



KIA타이거즈 운영철이 지난 22일 일본 오키나와 코자 신킨 스타디움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2차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 제공

닝 4피안타 1볼넷 1폭투로 5실점(4자책점), 유승철은 1.1이닝 2피안타 1볼넷으로 1실점을 내줬다. 갑작스럽게 마운드가 흔들렸지만 김기훈과 최지민은 무난한 투구를 펼쳤다. 김기훈은 1이닝 3볼넷 1폭투에도 무자책점(1실점)을 기록했고, 최지민은 1이닝 2볼넷 1폭투에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KIA의 패배로 빛이 바랬으나 타선에서는 변우혁과 김석환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한 변우혁은 0-0으로 맞선 3회초 2사 1루에서 적시 2루타를 때리며 선취점을 뽑았다. 김석환은 1-9로 뒤진 8회초 무사 1루에서 대타로 나서 우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한규빈 기자

'데뷔전 완승' 김현석 전남드래곤즈 감독 "이 분위기 그대로 밀고 갈 것"

천안시티FC 2-0으로 격파
킵오프 5분 만에 승기 장악

김현석(사진) 신임 감독 체제로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올 시즌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2일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티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개막전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전남드래곤즈는 전반 48초 만에 정강민이 하남의 도움을 받아 선제골을 터트렸고, 약 4분 뒤에는 김용환이 김예성의 크로스를 머리로 내리찍으며 추가 득점을



완성했다.

김현석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로 생각했다. 지난해 천안시티FC에 1승 2패로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를 깬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 분위기를 쪽밀고 나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끔 앞으로도 탄탄하게 준비

만들었다. 전반 29분에는 페널티킥을 내렸지만 최봉진 골키퍼가 리테이크까지 이정협의 두 차례 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무실점 승리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해보다 약 2주 이른 개막으로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공수 양면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이는 모습이였다. 특히 김예성과 김용환 등 측면 수비 자원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눈에 띄었다.

김 감독은 "완벽히 준비하지 못했지만 손발이 어느 정도 맞아간다. 선수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며 "측면 수비의 전진 배치를 지향한다. 지난해 충남아산FC에서도 수비 자원의 득점이 많은 편이었고, 올해도 측면 수비의 공격 가담을 통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 서구청 펜싱, 남·여 단체전 동반 우승 '쾌거'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예페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27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남·여 에페단체전 동반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정함·김재원·이승현·김대언으로 구성된 광주 서구청 남자펜싱팀은 18~21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익산시청을 37-2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강영미·최은숙·정지윤·김수빈이 나선 광주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전남도청을 45-4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의 전국대회 남·여 단체전 동반 우승은 지난 2022년 제51회

회장배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정함은 남자일반부 에페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정함은 결승에서 장병찬(익산시청)에 9-15로 아쉽게 졌다.

정지윤은 여자일반부 에페개인전 준결승에서 이수빈(화성시청)에 14-15로 석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감독은 "서구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결과로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동반 우승을 해 너무 기쁘다"며 "향후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특히 올해 전국체전 동반 금메달을 이뤄 광주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지난 21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끝난 제27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남·여 에페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 제공